5면에서 계속

兩銀花純金帶一腰 사모화일초십괴紗帽靴一 十塊. 상문지왈上聞之曰 공특몽신황제후악恭特蒙新皇帝厚渥 전고소무前古所無 조정향아국지심지의朝廷向我國之心至矣 : 사은사 화천군 권공이 돌아오면서 평안도에 이르러 강계로 그 돌아간 아버지를 분상奔喪해갔다. 공이 환국하고자 하직배알을 하니 (명의) 황제가 특별히 명하여 불러서는 몸소 좌순문左順門에 임어하여 공이 가까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면대로 위로하기를 ‘ 너희 나라 임금이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고 네가 또한 먼길을 오느라 노고하여 초췌하였으니 의복 한 습襲(겉옷과 속옷 각 한 벌을 갖춘 것)과 각색의 비단 나사견각 5필과 은 50냥 및 꽃을 수놓은 순금 허리띠 하나와 사모 한 개와 가죽신 10켤레를 내린다 ’ 하였다. 상께서 이를 듣고 ‘ 공이 신황제의 두터운 악우를 입었으니 전고에 없던 바인즉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이다 ’ 하였다.

여기에서 신황제라 하면 명나라 정통正統황제 영종英宗을 말하며 이해에 명의 선덕제宣德帝 선종宣宗이 죽고 영종이 즉위해서 화천군 공이 조선국의 부마로서 사절의 정사가 되어 중국에 다녀왔던 것이다. 화천군이 이때 중국에 정사로 사행을 할 정도이면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의 높은 작위 부마로서도 20세는 넘었을 것이다. 화천군 또한 생년을 알 수가 없는데 태종의 12녀 숙근옹주를 상하여 세종 14년, 1432년 5월 16일에 화천군에 봉해지니, 이 무렵에 15세 전후의 나이로 부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3년 뒤에 종2품상의 가정대부로 올라 사은사가 되어 중국에 가니 이때의 나이가 적으면 18,9세 많으면 21,2세 정도였을 것이고 조혼하던 시대에 45세 미만의 공의 3남으로서 충분히 그 연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동년, 세종 17년, 1435년 9월 18일에 임금 세종이 공에게 제사를 내리는 기록이 실록에 나온다. 공이 6월 5일에 졸한 지 달수로 넉달 만이고 이때에야 공의 영구가 경기의 장지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공의 영구가 장지인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현암에 바로 도착하지 않고 서울의 본가로 와서 빈소를 차리고 부녀등 전체 상복인喪服人이 함께하는 발상거애發喪擧哀를 한 다음 임금의 사제를 받고 백관 및 친지의 조상도 받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공은 5월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제에 경대부는 3월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 이것이 연장된 경우가 있으며 유월장逾月葬의 경우만 두 달에 걸치고 짝수의 달이 되는 4월이나 6월장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사제우강계절제사권복賜祭于江界節制使權復 기문왈其文曰 군신지간君臣之間 생즉독어은의生則篤於恩義 사즉비기애영死則備其哀榮 차고금지상전야此古今之常典也 유경품자웅위惟卿稟資雄偉 조행충근操行忠勤 조등연방早登蓮榜 우첩무예又捷武藝 호위양장號爲良將 탁거숙위지사擢居宿衛之士 경자전구頃者 ㈜구아변흔.我邊 비수부월지위授罍鉞之威 익자간성지중益資干城之重 부하일석엄이불숙夫何一夕奄爾不淑 수단지기수천소정脩短之期雖天所定 경지운명실출의외卿之殞命實出意外 부음지지비애배상訃音之至悲哀倍常 즉령추증숭질卽令追贈崇秩 겸치부의兼致賻儀 차명예관팽진박전且命禮官 陳薄奠 자휼전지특가위玆恤典之特加慰 영혼지불매英魂之不昧 영기유지靈其有知 흠차일상歆此一觴 : 강계절제사 권복에게 제사를 내렸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 임금과 신하 사이는, 살아서는 은혜와 의리를 도타이 하고 죽어서는 그 애처러워함과 영광되게 함을 갖추는 바인즉 이는 예나 지금이 같은 떳떳한 전범이다. 헤아리건대 경은 타고난 자질이 웅위하고 마음을 잡아 행하는 바가 충성스럽고 근면하여 일찍이 소과小科에 오르고 또한 무예로 급제하여 좋은 장수로 불리면서 숙위의 장사로 발탁되었는데 지난번에 털가죽옷의 오랑캐가 우리의 변경에 트집을 일으키므로 부월의 무서움을 주어 위엄을 보이게 하니 더욱 간성의 무거움에 도움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룻저녁에 문득 맑지가 못하게 되었단 말인가. 수한이 길고 짧은 것은 비록 하늘이 정한 바라 하여도 경의 운명殞命은 실로 의외로 나온 바라 부음이 이르자 비애가 평소의 갑절인지라 곧 직질을 높여 추증케 하고 겸하여 부의케 하였으며 또한 예관에게 명하여 박한 전을 베풀게 하였으니 이는 진휼하는 은전을 특별히 더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영명한 혼령이 어둡지 아니하고 영혼이 아는 바가 있거든 이 한 잔 술을 흠향하라 ’ 하였다.

이 제문에서 임금이 공더러 일찍 등과하였다고 하였으니 20전후의 약관에 공이 과거를 한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연방蓮榜에 올랐다 하였으니 이는 소과小科를 한 것인데 그것이 생원과 진사를 뽑는 사마시司馬試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생원·진사를 뽑는 사마양시는 세종 말엽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니 공이 태종조에 무과로 출사하였는데 사마시를 하였을 수는 없다. 조선 초기에는 사마시가 없고 대과에서 갑을병 3과 외에 정과丁科가 있어 여기에 진사進士로서 소수를 급제시켰는데 이는 대과이지 소과가 아니었다. 정과는 진사 중에 우수자를 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 문과를 위한 예비시험 격인 초시初試에 등제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속칭 소과에는 초시初試·회시會試와 생원生員·진사進士의 구별이 있었다는 게 매천야록梅泉野錄 등의 통설이다. 어쨌든 공이 연방에 올랐다 하였으니 소과를 먼저 하였고 그 다음에 무과를 하여 급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문에서 ‘ 첩무예捷武藝라 한 바의 첩捷은 과거에 급제한다는 뜻이 있고 무예는 무과가 무예의 과거를 줄인 말이니 무예 또한 무과와 같은 뜻이다. 다음에 공의 운명을 일컬어 일석一夕에 불숙不淑했졌다 하였으니 일석一夕은 일조一朝와 같은 말인데 일조는 ‘ 하루아침 ’으로서 평명平明에 어떤 일이 발생함을 뜻하고 일석은 ‘ 하룻저녁 ’으로서 야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이 낙석의 변을 당한 것이 낮이 아닌 야음중이 아니었을까도 생각된다.

이렇게 공이 졸하고부터 20년이 지난 세조世祖 1년, 1455년 9월 5일 정축일조丁丑日條의 실록에 공의 3남 화천군花川君 양효공襄孝公 공恭이 좌익공신佐翼功臣에 녹정錄定되는 기사가 나온다. 화천군이 받는 것은 좌익공신 3등으로서 공신호는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이다. 그리고 3년 뒤 세조 4년, 1458년 6월 29일에 좌익공신에 대한 교서敎書를 반포하였다. 그 교서의 화천군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교권공왈敎權恭曰 주중기상周重ㅅ常 소이기어비적所以紀於丕積 한서대려漢誓帶礪 내용답호원훈乃用答乎元勳……사책훈위좌익삼등공신肆策勳爲佐翼三等功臣 작기부모爵其父母 유급영세宥及永世 잉사전팔십결仍賜田八十結 노비팔구奴婢八口 백은삼십오량白銀三十五兩 표리일단表裡一段 내구마일필內廐馬一匹 지가령야至可領也 어희군신일심於戱君臣一心 기영보어홍업期永保於洪業 자손만세子孫萬世 서무망어금휴誓無忘於今休 : 권공에게 교명敎命하여 이르기를 ‘ 주周나라는 교룡과 일월을 그린 왕후王侯의 깃발을 무겁게 하여 커다란 업적을 기리는 까닭으로 하고 한漢나라는 황하가 띠같이 마르고 태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로 맹세하여 이로써 으뜸의 공훈에 보답하였는바…… 이에 좌익3등공신으로 책훈하여 그 부모에게 작위를 주고 벌주지 않는 것이 후손 영세에 미치게 하며 인하여 전답 80결과 노비 8구에 백은 35냥, 겉옷과 속옷을 갖춘 1습, 왕실내에서 기른 말 1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할지어다. 아아,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커다란 기업基業을 같이 보전할 것을 기약하여 자손만대에 금일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 것을 맹세하라 ’ 하였다.

여기에서 그 부모에게 작위를 하사하였다 했다. 따라서 공은 이 날로 증자헌대부 병조판서에서 공신의 어버이로서 가증加贈되어 보조공신輔祚功臣 의정부우의정議政府右議政이 되고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으로 추봉追封되었다. 그런데 이 때에 가증우의정으로서 반드시 겸대직兼帶職도 부수되었을 터인데 이는 어디에 기록이 없어 추측할 수가 없다.

한편 그로부터 다시 4년 뒤인 세조 8년, 1462년 4월 14일에 공의 3자 화천군이 졸하여 실록에 그 졸기卒記가 실려 있다. 화천군은 세조와 은의가 두터웠고 그 잠저시부터 절친하였다. 화천군은 잠저시 세조의 고모부가 되는 인척이었거니와 그 졸기를 보면 왕실과 공의 집안과의 관계가 엿보이고 공의 집안이 특히 검소하여 빈한하다 할 형편이었음도 짐작케 하고 있다.

기묘화천군권공졸己卯花川君權公卒 공자경부恭字敬夫 강계절제사복지자江界節制使復之子 상태종후궁김씨녀숙근옹주尙太宗後宮金氏女淑謹翁主 봉화천군封花川君 세을묘이사은사여대명歲乙卯以謝恩使如大明 준사환지통주竣事還至通州 제지위부마帝知爲駙馬 소환사견召還賜見 사관대급의일습賜冠帶及衣一襲 백은채단보초견지白銀綵段寶 遣之 후출위경상우도도절제사後出爲慶尙右道都節制使 심개화천위尋改花川尉 을해우이사은사여대명乙亥又以謝恩使如大明 상즉위여좌익공신上卽位與佐翼功臣 복봉화천군復封花川君 지시이병졸至是以病卒 철조이일輟朝二日 사부미두병오십석賜賻米豆幷五十石. 공소업궁마恭少業弓馬 위도진무십여년爲都鎭撫十餘年 매수수열무삭명위대장每蒐狩閱武數命爲大將 사졸개애지士卒皆愛之. 성활달가빈안여야性豁達家貧晏如也 봉공불피이험奉公不避吏險. 부문상위도승지홍응왈訃聞上謂都承旨洪應曰 여소시도화천가予少時到花川家 영아입실迎我入室 사벽소연四壁蕭然 음여탁주수배이출飮予濁酒數杯而出. 평생불영산업平生不營産業 역무환기습亦無紈綺習 기심직실其心直實 명지사즉무난색命之事則無難色 어국가유로於國家有勞 비타부마비야非他駙馬比也. 증시양효贈諡襄孝 갑주유로양甲冑有勞襄 자혜애친효慈惠愛親孝 일자팽一子彭 : 기묘일에 화천군 권공이 졸했다. 공의 자는 경부敬夫이고 강계절제사 복復의 아들로 태종의 후궁 김씨의 딸 숙근옹주淑謹翁主를 상하여 화천군에 봉해졌다. 을묘乙卯(세종 17년, 1435)의 해에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통주通州(중국 요동의 지방인듯)에 이르렀는데 황제가 그가 부마임을 알고 소환하여 인견하고는 관대 및 의복 1습에 백은과 채단·보초寶(지폐)를 주어 보냈다. 뒤에 경상도도절제사가 되어 나가고 이윽고 화천위花川尉로 바뀌어 을해乙亥(세조 1년, 1455)에 다시 사은사가 되어 대명大明에 갔다. 상上(세조)이 즉위하여 좌익공신을 받고 다시 화천군에 봉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이틀 동안 조회를 거두고 부의로 쌀과 콩을 아울러 50석을 내렸다. 공은 소시에 궁술과 말타기를 수업하였으며 10여년 동안 도진무都鎭撫(3군 또는 5위에 딸린 으뜸 벼슬로 도총관都摠管의 원래 이름)로 있었는데 매양 임금이 사냥하거나 군사훈련을 사열할 때에는 그 대장으로 임명했으며 사졸이 모두 애경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집이 가난하되 이를 편안스레 여겼으며 공무에 봉사함에는 쉽고 위험함을 가려 피하지 않았다. 부음이 문달되자 임금이 도승지 홍응洪應에게 말하기를 ‘ 내가 소시에 화천군의 집에 도달하여 나를 맞이하여 방에 들어갔는데 사면벽이 썰렁하고 탁주 몇 잔을 대접하는지라 이를 마시고 나왔다. 평생 산업을 일삼아 경영하지 않고 비단이나

7면으로 계속

▲ 구묘표석을 옮기고 그 자리에 묘갈명을 세운 것이 제도와 달라 이를 오른쪽으로 구묘표석과 대칭되게 옮기기로 했다.

▲ 화산부원군종회의 권진택 회장(중)과 권정택부회장(좌)·권정안 총무가 사적의 획기적 발굴을 계기로 성묘를 하고 묘역을 다시 봉심하였다.